

- **주요 뉴스:** 미국 S&P500 지수, 5월말 이후 최대폭 상승. 다만 단기 반등이라는 의견 다수
 - 미국 리치몬드 연은 총재, 7월 FOMC에서 0.5%p 혹은 0.75%p 금리인상이 적절
 - ECB 정책위원, 역내 취약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에 부정적 의견 제시
 - 일본 총리, 일본은행의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증시에서의 저가 매수 유입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2.5%], 달러화 약세[-0.3%], 금리 상승[+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에너지 및 고성장 관련주 중심으로 매수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화학 및 자원 관련주 저가매수 유입 등으로 0.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영향
 유로화가치는 0.2% 상승, 엔화는 1.1%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 인사의 고강도 금리인상 발언 등이 반영
 독일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2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91.2원, -2.4원) 0.1% 하락, 한국 CDS 보합

		6/21일	6/20일	전일대비			6/21일	6/2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764.8	휴장	2.45%	국채 금리 10y	미국	3.27%	휴장	5bp
	유럽	408.58	407.14	0.35%		독일	1.77%	1.75%	2bp
	중국	3,306.7	3,315.4	-0.26%	CDS 5y	한국	48bp	48bp	0bp
	일본	26,246	25,771	1.84%		중국	78bp	83bp	-5bp
	한국	2,408.9	2,391.0	0.75%	위험 지표	EMBI+	-	429	-
환율	달러지수	104.42	104.70	-0.27%		VIX	30.19	휴장	-2.71%
	유로화	1.0533	1.0511	0.21%		WTI유	110.65	휴장	0.99%
	엔화	136.57	135.07	-1.10%	원자재	구리	403.9	휴장	0.64%
	위안화	6.6895	6.6925	0.04%		금	1,833.0	1,838.7	-0.31%
	원화	1,293.6	1,292.4	-0.09%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S&P500 지수, 5월말 이후 최대폭 상승. 다만 단기 반등이라는 의견 다수

- 6/21일(현지시각) S&P500 지수는 큰 폭 상승(3,746.8 +2.5%). 다우 및 나스닥 지수도 모두 상승(각각 30,530.3 +2.2%, 11,069.3 +2.5%). 달러화 지수(104.4 -0.3%)는 하락하고 국채금리(10Y +5bp)는 올라 전형적인 위험자산 선호 현상 발생
- 이번 상승은 그 동안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저가매수 유입에 의한 결과로 추정. 또한 6/22~23일 예정된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및 6/24일 발표될 6월 미시견대 소비자태도지수 관련 기대, 일부 헤지펀드의 숏 커버링 등도 일조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날 상승이 약세장 속에서의 단기 반등(Bear Market Rally)에 불과하다고 주장. 연준의 강력한 통화긴축 지속과 이에 따른 경기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Principal Global Investors의 Seema Shah는 일부 투자자들이 기업의 주가가 최근 실적에 비해 저평가 상태라고 인식할 수 있으나, 향후 기업실적 악화 가능성이 높아 주가 역시 결국에는 추가적인 하락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
- 모건 스탠리의 Michael Wilson 스트래티지스트 역시 미국의 경기침체 및 이에 따른 기업이익 감소 전망 등을 완전히 반영하려면 S&P500 지수가 현 수준에서 20% 내외 추가 하락하여 2900~3100에 도달해야 한다고 진단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리치몬드 연은 총재, 7월 FOMC에서 0.5%p 혹은 0.75%p 금리인상 지지

- 바킨 총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엄격한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강도는 결국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 한편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강한 물가상승 압력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

■ 미국 5월 기준주택판매, 전월비 감소. 모기지 금리 상승 등이 원인

- 해당 판매는 연환산 541만채로 전월(560만채) 대비 감소. 다만 예상치(540만채)를 상회. 대출 금리 상승 등이 매수 수요를 제한. 한편 기준주택의 중간값은 사상 최초로 40만달러를 상회. 수급 불균형 지속 등이 이번 결과를 초래

■ 골드만삭스,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경고

- 향후 1년 이내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을 상향(15%→30%). 1년 이후 및 2년 이내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은 25%. 안 해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고물가 지속 등으로 연준의 보다 강력한 금리인상이 예상되며, 이는 성장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

■ ECB 정책위원, 역내 취약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에 부정적 의견 제시

-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카지미르 총재는 역내 취약국의 국채 스프레드 제어가 ECB만의 과제는 아니라고 주장. 분절화 관련 논의에서는 해당 국가가 경제의 현대화, 혁신 등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설명
- 핀란드 중앙은행 렌 총재 역시 어떤 국가든 자동적으로 ECB 분절화 대책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며, 시행 관련 많은 판단의 기준이 존재한다고 주장

■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급격한 물가상승은 신속한 통화정책 정상화의 근거

- 렌 총재는 러-우 전쟁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서비스 및 제품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될 수 있는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

■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예상

- 휴 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까지 떨어뜨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필요 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며, 지금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침체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첨언

■ 일본 총리, 일본은행의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지

-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 환율 뿐 아니라 전체 경제 및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발언. 지금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 등을 초래하는 통화긴축을 검토할 수는 없다고 강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6/22 현지시각 기준)

- 연준 파월 의장 및 ECB 데 쿠도스 부총재 강연,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 유로존 6월 소비자신뢰, 영국 5월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주가국채 가격의 동시 하락,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지속 예상 - Financial Times

(Why This Bear Market Is Bad for Stocks and Bonds)

- 1990년대 후반 이후 주가와 채권 가격은 역(negative)의 상관관계를 형성. 그러나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채권 가격도 동시에 하락. 이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향후 실질성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을 가정한다면 주식 및 채권 가격의 정(positive)의 상관관계가 유지될 전망. 이러한 여건에서는 일반적인 자산 배분을 통한 위험회피 전략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소지

■ ECB의 국채시장 안정 대책, 유로존 위기 억제에 중요 - Financial Times

(Can the ECB prevent a second euro crisis?)

- 유럽 국채시장의 구조적 안정성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ECB의 긴급회의는 주목해야 하는 사건. 이는 유럽 최대 국채시장이면서 부채비율이 높은 이탈리아의 국채금리 안정에 중요하기 때문
- ECB는 취약국의 국채금리 스프레드 조정을 통해 해당 국가의 재정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과제. 이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이에 대한 시험에 나설 우려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물가 대책, 관세 외에 다양한 방안 제시가 필요 - 블룸버그

(Biden Needs to Do More Than Just Lift Tariffs)

■ 탈세계화 노력,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 시 비합리적 - Financial Times

(The big mistakes of the anti-globalisers)

■ 미국 채권시장의 변동성 증가, 고물가와 경기침체 우려의 대립적 영향에 기인 - WSJ

(Inflation Collides With Growth Fears to Trigger Big Swings in the Bond Market)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